

「韓國·日本·臺灣의 對美輸出市場占有率 競爭과 換率效果」: 論評

金 秀 勇

*

『韓國開發研究』1987년 여름호에 실린 左承喜 博士의 論文¹⁾은 換率의 변동이 輸出市場占有率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左博士의 論文은 韓國, 日本, 臺灣 3國의 輸出이 각기 美國輸入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을 Deaton과 Muellbauer의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模型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추정결과에 의거하여 이들 3國의 國內物價 또는 對달러 換率의變動이 自國과 나머지 두 나라의 美國市場에서의 占有率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本 論評의 目的은 최근의 韓美經濟關係에서

筆者: 西江大學校 經商大 教授

1) 左承喜, 「韓國, 日本, 臺灣의 對美輸出市場占有率 競爭과 換率效果」, 『韓國開發研究』, 第9卷第2號, 1987 여름, pp. 3~24.

원貨의 對달러 換率이 軸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論文의 實證分析結果와 이러한 實證分析에 기초가 되는 理論的 模型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성급한 政策結論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 방면의 보다 進전된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論文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AIDS 模型을 輸入占有率 說明에 사용하여 美國市場에서의 韓國과 日本, 臺灣의 占有率을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추정에 사용된 식은 두 가지인데 韓國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의 式 (1)과 (2)가 된다.

$$w_K = \alpha_K + \gamma_{KK} \log p_K + \gamma_{KJ} \log P_J + \gamma_{KT} \log p_T + \beta_K \log M_{KJT} + \varepsilon_K \dots \dots \dots (1)$$

$$w_K = \alpha_K + \gamma_{KK} \log WPI_K + \gamma_{KJ} \log WPI_J + \gamma_{KT} \log WPI_T + \delta_{KK} \log E_K + \delta_{KJ} \log E_J + \delta_{KT} \log E_T + \beta_K \log M_{KJT} + \varepsilon_K \dots \dots \dots (2)$$

이들 식에서 첨자 K, J, T 는 각각 韓國, 日本,

臺灣을 나타내며 P 는 달러表示 都賣物價指數이고 M_{KJT} 는 美國의 韓·日·臺灣으로부터의 總實質달러輸入이다. w_K 는 美國의 韓·日·臺灣으로부터의 總名目달러輸入에 차지하는 韓國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w_K + w_J + w_T = 1$ 이다. 式(2)는 式(1)의 P_K 를 WPI_K 와 E_K 로 분리한 것으로 WPI 는 國內通貨表示 都賣物價指數이며 E 는 美貨 1달러에 대한 各通貨의 名目換率이다.

이들 式은 1975~86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國別로 OLS方式으로 추정하고 時差는 「알몬 래그」方式을 채택하였다. 추정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추정된 係數를 사용하여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 左博士가 제시한 몇 가지 중요한, 그러나 수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式(1) 형태의 추정에 의하면 韓國의 占有率式에서의 臺灣의 價格과 臺灣의 占有率式에서의 韓國의 價格이 각각 負의 符號를 갖고 있어 韓國과 臺灣의 對美輸出은 상호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左博士 자신도 이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逆說的인 結果에 대해서는 물론 理論的으로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推定式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의문스러운 결과는 소위 所得效果에 관한 것인바 위의 式(1)과 (2)에서 β 의 값이 韓國과 臺灣의 경우는 負가 되고 日本의 경우는 正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韓·日·臺灣 3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할 때 韓國과 臺灣의 占有率은 감소하고 日本

의 占有率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左博士는 이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美國의 이들 3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하는 것과 韓國과 臺灣의 占有率이 증가하는 것과는 매우 높은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日本의 경우는 반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변수 사이에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고 해서 多重回歸(multiple regression)에서 正의 符號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負의 符號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결과는 위의 式(2)의 추정에서 나타난다. 式(1)과 (2)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韓·日·臺灣 3國에서의 달러表示 物價指數를 한 變數로 표시한 경우와 이를 自國通貨表示 物價指數와 對달러 換率指數의 두 變數로 나누어 표시한 경우에 각각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式(2)의 경우 두 변수의 추정된 부호는 반대가 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左博士 論文의 <表 2>에서 보듯이 韓國의 占有率 推定式에서 臺灣의 物價와 換率, 그리고 臺灣의 占有率 推定式에서 韓國의 物價와 換率은 같은 符號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臺灣의 國內物價가 상승할 때나 臺灣通貨의 平價切下가 이루어질 때나 마찬가지로 韓國輸出의 美國市場占有率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된 결론을 가져오는 추정계수의 統計的 有意度는 높지 못하다. 그러나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추정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模型 자체에서 찾거나 이용된 자료 또는 추정방식 등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된 적어도 세 가지의 의문스러운 결과는 이 論文의 보다 중요한 다른 結論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추정방법이나 자료의 문제라기 보다는 추정에 사용된 模型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左博士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사용한 AIDS 模型의 큰 장점의 하나는 輸入占有率分析에 所得效果 또는 支出效果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相對價格에만 의존하며 사전적으로 所得效果를 배제한 模型들의 제약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적합하도록 模型의 단순화를 계속 도입한 결과 실제 추정에 사용된 모형은 매우 제한적인 가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선 이 論文에서 사용된 輸入配分分析은 美國의 경우 總輸入은 美國의 總所得 輸入價格指數, 國內價格指數 등의 變數에 의해 결정되고 總輸入의 國家別 配分, 즉 個別國家로부터의 輸入은 總輸入과 個別國家로부터의 輸入價格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假說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2단계 豫算運用은 輸入과 國內의 輸入競爭財에 대한 支出의 分離性을 가정하는 것이다. 左博士가 추정한 것은 바로 두번째 단계의 豫算運用에 해당되는 것으로 輸入對象國을 韓國, 日本, 臺灣에만 국한시켜 앞에서의 式 (1)이나 (2)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 論文의 分離性 假定이 의미하는 것은 韓國의 自動車價格이 변동할 경우 美國의 自動車輸入에서의 韓國의 占有率은 美國產 自動車の 價格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市場에서 韓國產 自動車와 美國產 自動車の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日本車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이 가정은 매우 제한적이 된다.

左博士는 자신의 論文의 註 6)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美國의 韓·日·臺灣 3國으로부터의 輸入은 美國의 國內生産과 非競爭的인 輸入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추정결과(表 3)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國의 對美輸出의 상당 부분이 美國內에서의 生産과 경쟁관계가 높은 消費財들임을 보더라도 非競爭的인 輸入이라는 성격규정이 잘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左博士의 추정결과를 받아들여더라도 이것은 韓·日·臺灣 3國의 輸入을 하나로 합쳐서 보았을 때 해당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韓·日·臺灣 3國間의 占有率 變動과 관련되는 分離性 假定과는 다른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左博士 推定模型의 다른 하나 두드러진 문제점은 이것이 韓·日·臺灣 3國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分離性을 가정하고 앞에서의 2단계 豫算運用을 적용하여 輸入의 國別配分은 國別價格과 總輸入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美國의 輸入對象國 모두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국가들을 다 포함시켰을 때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左博士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3國模型이 의미하는 바대로 3國間의 美國市場占有率 決定이 美國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輸入의 크기나 이들의 價格과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3國 사이의 占有率變動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천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韓國 또는 日本이나 臺灣에서 物價 또는 換率의 變動이 있을 때 韓國의 對美輸出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이지 美國市場에서의 韓國의 占有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아니다. 占有率이 韓·日·臺灣 3國의 對美輸出에서의 占有率일 뿐이라면 더욱 그렇다.

理論的 妥當性이나 政策的 意味를 부여함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實證研究은 現實의 分析과 政策提示에 있어 성급한 주장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左博士의 이 論文도 예외가 아니다. 3國間의 占有率模型에 열중하다 보니 韓國이나 美國에서의 元貨 換率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3國間의 관계에만 국한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元貨切上壓力이나 우리나라 換率運用상의 우려의 근거가 모두 미국의 輸入에 있어서 한국, 대만 및 선진국, 특히 일본의 對美輸出 상호간의 대체성의 有無 및 그 크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p. 4) 모든 문제가 3國의 對美輸出에서의 상호대체성에 달린 것이라면 美國은 韓·日·臺灣에 대해 개별적으로 切上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3國通貨의 相對價格의 적정수준만 지켜주도록 요구할 것이다.

흥미있는 결론으로서 日本 元貨의 對달러切上에 따라 臺灣이 韓國에 비해 2배 이상의 對美輸出市場占有率 增加를 시현하고 있다던가, 같은 비율의 元貨 및 元貨의 對美달러切下(切上)時 韓國은 占有率의 減少(增加)를 보게 된다는 것, 物價를 통한 경쟁은 韓國과 日本간이 더 심한 반면 換率을 통한 경쟁은 臺灣과 日本간이 훨씬 강하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p. 15) 이들이 모두 3國만을 포함시킨 模型의 추정결과인 점을 상기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左博士는 韓·日·臺灣 3國을 합친 占有率推

定結果를 토대로 美國의 輸入抑制政策으로서 換率調整보다는 美國의 支出減少가 더 효과적인을 지적하고 있는바(p. 13 및 15) 이는 단지 $\log GNP_{US}$ 의 係數(0.0826)와 $\log P_{KJT}$ 의 係數(-0.0595)의 크기의 차이만 보고 所得效果가 相對價格效果를 크게 압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所得(GNP)과 相對價格(換率)의 범위를 비교해 본다면 換率調整보다 美國의 總支出減縮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권고하기는 어렵게 된다. 즉 美國의 입장에서 換率은 20% 정도 平價切下할 수 있어도 GNP는 5% 정도라도 낮출 수 있겠는가.

이 論文의 이론적 근거나 정책적 시사문의 문제를 떠나서 궁극한 문제의 하나는 韓國, 日本, 臺灣의 占有率 決定에 있어 왜 韓國이나 臺灣의 物價나 換率은 2 내지 3分期의 時差效果만 있고 日本의 物價나 換率은 4년이라는 긴 時差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時差期間은 사전적으로 부여한 것이지만 여러 다른 기간의 수많은 時差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된 時差構造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깊은 검토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左承喜 博士의 이 論文은 AIDS를 美國의 韓國을 포함한 아시아 3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적용한 것으로 이 방면의 선구적인 論文이라고 생각한다. 실증분석의 방법이나 자료의 사용에 있어 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韓國과 美國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換率을 중심으로 많은 政策論議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論文의 결론이나 정책적 시사점이 액면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님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